

휴가철 교통사고 특성분석

The Analysis of Traffic Accident Characteristics During the Holiday Season



최경임



유진화



박웅원

1. 서론

휴가철에는 짧은 기간에 이동이 많은 명절과는 달리 일정한 기간 내(7~8월)에 이동이 이루어지며, 명절과 같이 가족단위의 이동이 많아 교통사고 1건당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이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통해 이동을 하게 되어 고속도로의 통행량이 증가하는 반면 도심내부의 교통량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가용의 이용이 많아지는 등 교통환경의 변화로 교통사고의 특성도 평소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량¹⁾을 보면 휴가철(7-8월)동안 월평균 통행량은 노선별로 차이는 있으나 평소 월평균 통행량에 비해 최대 3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고속도로별 통행량

을 보면 경부고속도로는 평소보다 월평균 4.6%, 영동선은 6.6%, 서해안선은 7.2% 증가하였다. 특히 2009년 개통된 서울춘천선은 평소에 비해 통행량이 33.4% 증가하였으며, 동해선은 32.0%, 당진상주선은 16.8% 증가한 것을 나타냈다. 표 1은 최근 5년간 주요고속도로별 통행량을 나타낸 것이다.

최근 5년간 휴가철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증가하다가 2010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1년도 교통사고는 2007년 대비 5.91% 증가하여 평소 교통사고 증가율 4.51%와 비교하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소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7년 대비 2011년 16.62% 감소한데 반해 이 기간 동안에는 7.98% 감소하는데 그쳐 휴가철 교통사고 사망자

1)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2012.7.10)

최경임 : 교통안전공단 녹색교통IT본부 안전연구처, kichoi@ts2020.kr, Phone: 031-362-3708, Fax: 031-481-0491

유진화 : 교통안전공단 녹색교통IT본부 녹색교통처, gina@ts2020.kr, Phone: 031-362-3665, Fax: 031-481-0491

박웅원 : 교통안전공단 녹색교통IT본부 안전연구처, parkww@ts2020.kr, Phone: 031-362-3701, Fax: 031-481-0491

표 1. 최근 5년간 휴가철 주요고속도로 통행량

(단위 대/년)

고속도로 노선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2007년대비 2011년 증가률(%)
경부선	30,449	27,827	29,556	32,449	31,097	151,377	2.13
남해선	9,129	8,470	8,793	8,834	8,665	43,891	5.08
88올림픽선	1,366	1,394	1,532	1,723	1,541	7,555	12.82
서해안선	9,006	8,986	10,335	10,785	8,754	47,864	2.80
익산포항선	1,360	1,821	2,069	2,315	2,591	10,154	90.55
호남선(논산천안선)	6,085	5,832	7,410	8,253	8,488	36,067	9.49
당진상주선	-	850	3,416	4,235	4,320	12,821	408.24
중부선(통영대전선)	10,763	10,352	11,116	11,707	10,509	54,445	2.36
중부내륙선	4,806	5,343	5,771	6,709	6,889	29,518	43.33
영동선	15,964	14,907	15,602	16,419	14,397	77,288	9.81
중앙선(대구부산선)	10,413	9,734	10,681	11,723	11,163	53,713	7.20
서울춘천선	-	-	400	1,337	1,404	3,140	251.44
동해선	1,492	1,360	1,643	1,974	1,977	8,445	32.51
서울외곽선	24,697	24,256	25,765	26,542	26,406	127,664	6.92
제2경인선	2,220	2,146	2,355	2,092	2,067	10,880	6.89
경인선	4,024	4,052	4,215	4,362	4,373	21,026	8.69
서천공주선	-	-	549	699	667	1,915	21.49
호남선지선	3,737	3,401	4,627	5,034	4,802	21,601	28.52
중앙선지선	4,464	3,863	4,130	4,419	4,422	1,297	0.94

자료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2012.7.10)

표 2. 최근 5년간 휴가철 교통사고 현황

연도	휴가철(7-8월)			그 외 기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007년	36,019	1,015	58,387	175,643	5,151	277,519
2008년	38,107	981	60,258	177,715	4,889	278,704
2009년	40,274	968	63,745	191,716	4,870	298,130
2010년	38,348	863	60,609	188,530	4,642	291,849
2011년	38,149	934	59,610	183,562	4,295	281,781
합계	190,897	4,761	302,609	917,166	23,847	1,427,983
평균 치사율	2.49%			2.60%		

자료 : 교통사고분석시스템(도로교통공단)

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휴가철에는 차량의 통행량이 많아지고, 자가용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휴가철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근 5년간 휴가철(7~8월) 동안 일어난 교통사고를 대상으로 사고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II. 휴가철 교통사고 발생현황분석

1. 요일별·시간대별 교통사고 현황

1) 요일별 교통사고 현황

휴가철 교통사고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금요일과 토요일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표 3. 최근 5년간 요일별 휴가철 교통사고 현황

요일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점유율 (%)
월	5,333	4,743	5,562	5,475	5,345	26,458	13.86
화	5,464	5,368	5,385	5,543	5,595	27,355	14.33
수	5,304	5,356	5,896	4,896	5,592	27,044	14.17
목	4,977	5,517	6,007	5,425	4,988	26,914	14.10
금	5,218	6,003	6,247	6,120	5,940	29,528	15.47
토	4,748	6,170	6,127	5,890	5,890	28,825	15.10
일	4,975	4,950	5,050	4,999	4,799	24,773	12.98
합계	36,019	38,107	40,274	38,348	38,149	190,897	100.00

자료 : 교통사고분석시스템(도로교통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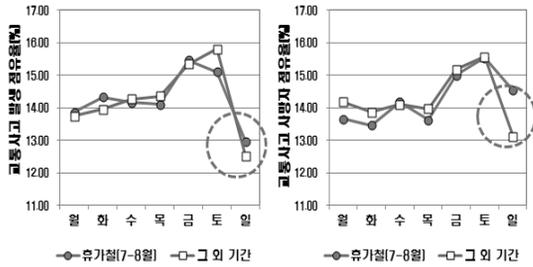


그림 1. 요일별 교통사고발생 및 사망자 점유율

토요일 교통사고의 점유율은 15.10%로 평소의 95.5% 수준이었으나, 일요일과 화요일은 평소보다 약 1.04배와 1.03배 높게 나타났다(표 3).

또한 휴가철에는 일요일 교통사고 사망자 점유율이 14.53%로 평소 일요일에 일어난 교통사고 사망자 점유율보다 약 1.11배 높게 나타났다(그림 1).

2) 시간대별 교통사고 현황

시간대별로는 평상시의 사고가 18-20시에 12.97%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과는 달리 휴가철에는 20-22시에 일어난 사고가 전체의 11.48%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 시간대 사망자 점유율은 평소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00시-06시에는 교통사고 점유율은 휴가철이 15.68%로 평소보다 0.42% 높았으며 이 시간대

표 4. 최근 5년간 시간대별 교통사고 점유율 및 치사율

시간대	휴가철(7-8월)			그 외 기간		
	교통사고 점유율 (%)	사망자 점유율 (%)	치사율 (%)	교통사고 점유율 (%)	사망자 점유율 (%)	치사율 (%)
00~02	7.03	9.20	3.26	7.02	8.20	3.04
02~04	4.66	7.37	3.94	4.39	5.88	3.48
04~06	3.99	8.72	5.45	3.76	7.62	5.27
06~08	5.57	6.78	3.04	6.27	8.49	3.52
08~10	8.32	7.12	2.14	8.92	7.07	2.06
10~12	8.12	7.94	2.44	7.58	6.66	2.28
12~14	8.94	8.34	2.33	8.23	6.80	2.15
14~16	10.05	8.15	2.02	9.52	7.60	2.08
16~18	10.81	8.23	1.90	10.47	8.50	2.11
18~20	11.14	9.16	2.05	12.97	14.19	2.84
20~22	11.48	9.89	2.15	10.89	10.03	2.39
22~24	9.89	9.09	2.29	9.98	8.96	2.33

자료 : 교통사고분석시스템(도로교통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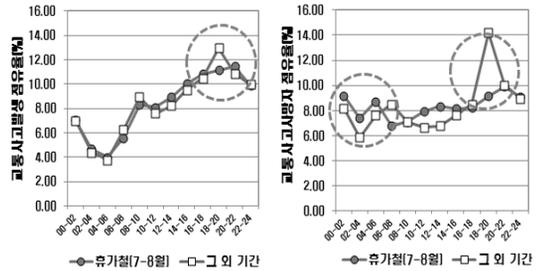


그림 2. 시간대별 교통사고발생 및 사망자 점유율

사망자도 25.29%로 평소보다 2.99% (평소대비 13.4%)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18시의 낮 시간대에서도 휴가철 교통사고 점유율은 37.9%로 평소 35.8%보다 2.12%가 높게 나타났다.

시간대별 치사율은 평소와 같이 04-06시에 5.45%로 가장 높았고, 특히 18-20시, 06-08시에 일어난 사고는 평소보다 치사율이 낮는데 비해 02-04시에 일어난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3.94%로 연중 평균 치사율 3.48%보다 13.2%나 높았다(표 4). 그림 2는 최근 5년간 시간대별 교통사고 및 사망자 점유율을 나타낸 것이다.

2. 사고유형별·도로종류별 교통사고 현황

1) 사고유형별 현황

최근 5년간 휴가철(7~8월) 교통사고를 사고유형별로 보면 차대차사고가 142,35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사망자 또한 2,078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평소에 비해 차대사람 사고의 치사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차량단독사고에 의한 치사율은 12.91%로 평소 치사율 12.14%에

표 5. 최근 5년간 사고유형별 휴가철 교통사고 치사율

사고유형	휴가철(7-8월)			그 외 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 수	치사율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 수	치사율
차대사람	39,312	1,486	3.78	201,545	8,864	4.40
차대차	142,350	2,078	1.46	674,989	10,037	1.49
차량단독	9,226	1,191	12.91	40,586	4,929	12.14
건널목	9	6	66.67	46	17	36.96

자료 : 교통사고분석시스템(도로교통공단)

표 6. 최근 5년간 사고유형별 휴가철 교통사고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합계	합계	발생건수	36,019	38,107	40,274	38,348	38,149	190,897
		사망자수	1,015	981	968	863	934	4,761
차대 사람	합계	발생건수	7,125	7,918	8,378	7,913	7,978	39,312
		사망자수	289	300	301	279	317	1,486
	횡단중	발생건수	3,423	3,671	3,713	3,420	3,052	17,279
		사망자수	155	162	163	146	149	775
	차도통행중	발생건수	1,036	1,170	1,155	808	683	4,852
		사망자수	48	51	43	26	28	196
	길가장자리 구역통행중	발생건수	752	954	897	595	669	3,867
		사망자수	29	32	29	11	25	126
	보도통행중	발생건수	471	594	548	479	446	2,538
		사망자수	10	8	10	13	15	56
기타	발생건수	1,443	1,529	2,065	2,611	3,128	10,776	
	사망자수	47	47	56	83	100	333	
차대 차	합계	발생건수	27,183	28,419	29,905	28,540	28,303	142,350
		사망자수	448	426	444	381	379	2,078
	정면충돌	발생건수	1,852	1,934	1,773	1,619	1,479	8,657
		사망자수	90	83	79	65	63	380
	측면직각 충돌	발생건수	13,722	15,006	16,077	14,896	13,188	72,889
		사망자수	195	198	185	139	155	872
	추돌	발생건수	8,900	9,430	9,520	8,549	8,388	44,787
		사망자수	119	108	131	125	100	583
	기타	발생건수	2,709	2,049	2,535	3,476	5,248	16,017
		사망자수	44	37	49	52	61	243
차량 단 독	합계	발생건수	1,710	1,767	1,988	1,895	1,866	9,226
		사망자수	277	254	221	203	236	1,191
	공작물충돌	발생건수	766	857	901	847	823	4,194
		사망자수	128	151	128	116	130	653
	도로외이탈	발생건수	230	210	207	173	174	994
		사망자수	60	51	38	25	43	217
	주차차량 충돌	발생건수	16	23	22	21	6	88
		사망자수	3	4	1	4	0	12
	전도전복	발생건수	285	233	292	234	165	1,209
		사망자수	52	31	35	34	33	185
기타	발생건수	413	444	566	620	698	2,741	
	사망자수	34	17	19	24	30	124	
건 널 목	합계	발생건수	1	3	3	0	2	9
		사망자수	1	1	2	0	2	6
	차단기돌파	발생건수	0	1	1	0	1	3
		사망자수	0	0	1	0	1	2
	경보기무시	발생건수	1	0	0	0	0	1
		사망자수	1	0	0	0	0	1
	직전진행	발생건수	0	0	2	0	0	2
		사망자수	0	0	1	0	0	1
	기타	발생건수	0	2	0	0	1	3
		사망자수	0	1	0	0	0	1

자료 : 교통사고분석시스템(도로교통공단)

비해 6.34%가 높게 나타났다(표 5).

세부유형별로 보면 휴가철에는 특히 횡단 중 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반면 측면직각충돌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는 공작물충돌, 도로이탈, 전도전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평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은 최근 5년간 사고유형별 휴가철 교통사고 현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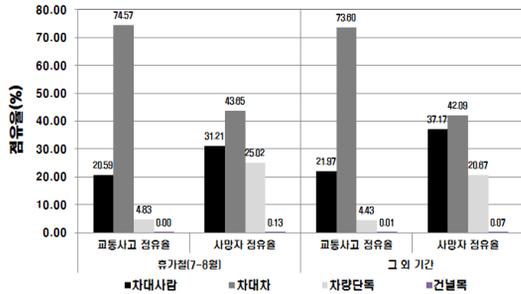


그림 3. 사고유형별 교통사고발생 및 사망자 점유율

사고유형별 휴가철 교통사고 사망자를 보면, 차대사람 사고로 인한 사망자 점유율은 31.21%로 평소보다 약 5.96%로 낮아 평소의 84% 수준이나, 공작물충돌사고와 같은 차량단속사고로 인한 사망자비율은 25.2%로 평소보다 4.35% 높게(평소 대비 121%) 나타났다(그림 3).

2) 도로종류별 현황

표 7에서 보듯이 휴가철에도 교통사고는 평소와 같이 시군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군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점유율은 49.61%로 평소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 시군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휴가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이러한 현상은 휴가철 도심의 차량통행량이 평소보다 적어 차량의 과속, 신호

표 7. 최근 5년간 도로종류별 휴가철 교통사고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고속도로	발생건수	705	733	728	729	741	3,636
	사망자수	76	85	93	79	54	387
국도	발생건수	5,896	5,761	6,306	5,548	4,618	28,129
	사망자수	282	275	264	221	222	1,264
지방도	발생건수	2,898	3,227	3,569	3,425	3,021	16,140
	사망자수	144	146	140	139	121	690
시군도	발생건수	26,009	27,966	29,143	27,273	28,741	139,132
	사망자수	509	469	467	398	519	2,362
기타	발생건수	511	420	528	1,373	1,028	3,860
	사망자수	4	6	4	26	18	58
합계	발생건수	36,019	38,107	40,274	38,348	38,149	190,897
	사망자수	1,015	981	968	863	934	4,761

자료 : 교통사고분석시스템(도로교통공단)

표 8. 최근 5년간 도로종류별 교통사고 및 사망자 점유율

구분	휴가철(7-8월)		그 외 기간		점유율차이	
	교통사고 점유율 (%)	사망자 점유율 (%)	교통사고 점유율 (%)	사망자 점유율 (%)	교통사고	사망자
고속도로	1.90	8.13	1.65	6.33	0.26	1.80
국도	14.74	26.55	14.91	27.94	-0.18	-1.39
지방도	8.45	14.49	8.46	15.44	-0.01	-0.94
시군도	72.88	49.61	73.06	49.01	-0.18	0.60
기타	2.02	1.22	1.92	1.29	0.10	-0.07

자료 : 교통사고분석시스템(도로교통공단)

위반 등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휴가철 국도에서의 교통사고는 평소보다 다소 적게 발생하는 반면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고속도로 사고 점유율은 평소에 비해 0.26%, 사망자 점유율은 1.8% 높게 나타났다. 고속도로 사고는 특히 과속, 졸음운전이 많아 치사율이 높으므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고속도로 노선별 현황

주요고속도로별 휴가철 교통량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5년 평균치를 보면 서울-양양선이(3년평균)이 66.96건으로 가장 많았고, 88올림픽 무안-광주선이 53.23건, 중부내륙선의 지선이 45.38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양양선과

표 9. 휴가철 주요고속도로 통행량 1만대당 교통사고발생률

고속도로 노선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	연평균 증가율
경부선	26.93	29.11	23.01	24.96	26.85	26.17	-0.07
남해선	21.91	24.79	28.43	19.81	19.62	22.91	-2.72
88올림픽 무안-광주선	43.94	57.41	58.75	63.84	42.19	53.23	-1.01
서해안선	38.87	44.52	32.42	28.74	38.27	36.56	-0.38
익산-포항선	25.74	41.20	50.76	34.56	40.53	38.56	12.02
호남선_논산-천안선	26.29	21.44	22.27	20.60	15.32	21.18	-12.64
충부선_통영-대전선	16.72	21.25	15.74	17.08	18.08	17.78	1.97
충부내륙선	10.40	12.17	29.46	23.85	27.58	20.69	27.60
영동선	28.82	27.50	26.60	29.24	35.08	29.45	5.04
중앙선	20.17	28.25	18.73	17.06	19.71	20.78	-0.57
서울-양양선	-	-	87.61	59.86	53.42	66.96	-21.91
동해선	23.46	11.03	18.26	20.27	25.29	19.66	1.90
서울외곽순환선	16.60	20.00	18.82	13.94	13.25	16.52	-5.47
제2경인선	29.28	39.62	29.72	31.07	16.93	29.32	-12.79
경인선	26.10	25.91	32.03	24.07	27.44	27.11	1.26
호남선의 지선	10.71	7.35	7.56	3.97	5.21	6.96	-16.49
충부내륙선의 지선	88.20	35.83	65.16	20.16	17.56	45.38	-33.21
중앙선의 지선	6.72	3.88	3.63	4.53	3.39	4.43	-15.71

충부내륙선의 지선은 교통량대비 교통사고 발생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익산포항선과 영동선은 교통량 1만대당 교통사고가 각각 5년 평균 35.56건과 29.45건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3. 차량 용도별·업종별 교통사고 현황

1) 용도별 교통사고 현황

최근 5년간 차량용도별 교통사고 및 사망자 점유율 등을 용도별로 보면, 비사업용과 사업용 모두 휴가철과 평소 교통사고 점유율이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비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는 월평균 71,416건으로 평소 68,498건보다 4.26%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용자동차는 휴가철 교통사고가 월평균 21,524건으로 평소 21,077건에 비해 2.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따라서 휴가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표 10. 최근 5년간 차량용도별 교통사고 및 사망자 점유율

구분	휴가철(7-8월)				그 외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		교통사고		사망자	
	월평균	점유율 (%)	월평균	점유율 (%)	월평균	점유율 (%)	월평균	점유율 (%)
비사업용	71,416	74.82	1,913	80.34	68,498	74.68	1,891	79.31
사업용	21,524	22.55	416	17.45	21,077	22.98	446	18.70
기타	2,509	2.63	53	2.21	2,141	2.33	48	1.99

자료 : 교통사고분석시스템(도로교통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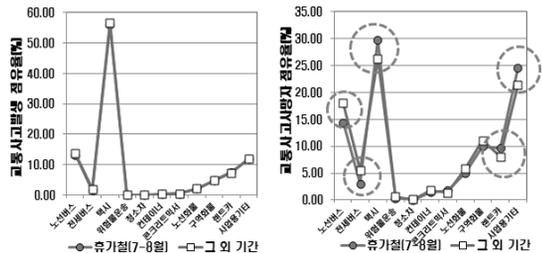


그림 4. 사업용자동차 업종별 교통사고발생 및 사망자 점유율

자가용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홍보 및 캠페인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업종별 교통사고 현황

차량업종별로 보면, 휴가철에는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의 사고 발생비율이 낮은 반면 휴가철 이용이 많은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택시의 경우 휴가철 사고 발생비율은 평소와 비교하여 다소 낮았으나 사망자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그림 4), 이러한 현상은 휴가철 도심 내 차량 통행이 감소하여 택시의 과속운전이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3) 렌터카 사고

최근 5년간 휴가철 렌터카 사고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렌터카 사고에 대한 점유율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사망자는 2007년 78명에서 2009년 101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0년 77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1년에는 사망자가 92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보아 휴가철 렌터카에 대한 안전관리가 조직적인 관리가 이루어

표 11. 최근 5년간 렌터카 교통사고 및 사망자 점유율

연도	전체		휴가철(7-8월)			
	발생건수	사망자수	교통사고 발생 건	점유율	명	점유율
2007년	3,165	78	656	20.73	11	14.10
2008년	3,709	90	763	20.57	13	14.44
2009년	4,018	101	842	20.96	23	22.77
2010년	4,169	77	807	19.36	11	14.29
2011년	4,492	92	889	19.79	22	23.91
계	19,553	438	3,957	20.24	80	18.26

자료 : 교통사고분석시스템(도로교통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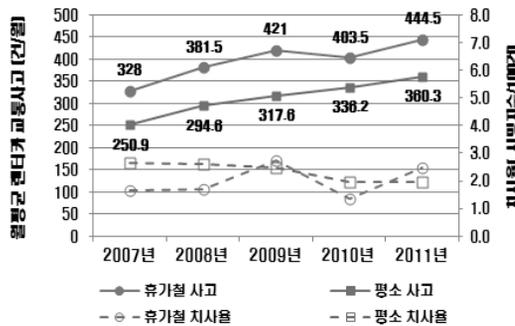


그림 5. 월평균 렌터카 교통사고 및 치사율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그림 5에서 보듯이 월평균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휴가철 렌터카 교통사고는 평소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의 경우 평소 렌터카 교통사고는 월평균 360.3건인데 비해 휴가철에는 444.5건으로 평소에 비해 1.24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법규위반 사고 및 음주운전사고

1)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

전체 12개월 중 휴가철 2개월(7~8월)동안의 법규위반별 교통사고를 보면 휴가철에는 앞지르기 금지위반과 서행 및 일시정지위반 사고발생 점유율이 높았으며, 서행 및 일시정지위반, 진로양보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망자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차량의 정비불량에 의한 교통사고의 점유율도 평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2)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1) 연령대별

휴가철 음주사고는 전체 음주사고의 16.7%, 사망자는 16.8%로 평소와 차이가 없으나 20대 운전자의 음주사고 사망자 점유율은 평소보다 2.23% 높아 20대 운전자에 의한 사고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최근 5년간 20대 운전자의 휴가철 교통사고는 월평균 601.7건으로 평소보다 9.94건이나 많이 발생하였으며 사망자는 월평균 1.82명으로 평소보다 10명이나 많았다. 반면 50대 운전자의 경우 휴가철 교통사고 사망자 점유율은 평소보다 2.23% 낮아 치사율이 평소보다 낮았다. 그림 6은 휴가철과 평소 음주교통사고 및 사망자 점유율을 비교한 것이다.

표 12. 최근 5년간 법규위반별 휴가철 교통사고 현황

1당 법규위반 대분류	1당 법규위반 중분류	전체 사고 대비 휴가철 사고 점유율(%)	
		교통사고	사망자
운전자법규 위반	과로	15.38	100.00
	과속	17.26	15.84
	앞지르기 방법위반	13.51	5.88
	앞지르기 금지위반	20.46	20.31
	중앙선 침범	17.06	16.09
	신호위반	16.81	16.16
	안전거리 미확보	17.10	18.43
	서행 및 일시정지위반	20.54	36.84
	부당한 회전	17.42	11.72
	통행우선 순위위반	14.71	0.00
	진로양보 의무 불이행	16.46	33.33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17.32	16.60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17.61	18.55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5.99	16.65
	차로위반(진로변경 위반)	16.87	18.87
	직진 및 우회전차의 통행방해	18.06	17.81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19.61	26.09
	긴급자동차에대한 피양의무 위반	0.00	0.00
기타(운전자법규위반)	17.38	20.61	
정비불량	정비불량 제차의 운전금지위반	23.53	14.29
보행자과실	보행자과실	15.38	100.00

자료 : 교통사고분석시스템(도로교통공단)

표 13. 최근 5년간 연령별 음주사고 및 사망자 점유율

구분	휴가철(7-8월)				그 외 기간			
	발생건수		사망자		발생건수		사망자	
	점유율(%)	월평균	점유율(%)	월평균	점유율(%)	월평균	점유율(%)	월평균
합계	100.00	2341.00	100.00	73.40	100.00	2343.76	100.00	72.76
14세이하	0.01	0.20	0.00	0.00	0.00	0.04	0.00	0.00
11-20세	2.25	52.70	3.68	2.70	1.78	41.64	3.68	2.68
21-30세	25.70	601.70	31.20	22.90	25.25	591.76	28.97	21.08
31-40세	26.90	629.70	23.16	17.00	27.33	640.54	23.25	16.92
41-50세	27.46	642.80	22.62	16.60	28.38	665.06	23.17	16.86
51-60세	13.06	305.80	11.04	8.10	13.02	305.26	13.36	9.72
61-64세	2.05	48.10	3.41	2.50	2.05	47.94	2.78	2.02
65-70세	1.83	42.80	3.41	2.50	1.60	37.54	3.41	2.48
71세이상	0.73	17.20	1.50	1.10	0.59	13.90	1.37	1.00
불명	0.00	0.00	0.00	0.00	0.00	0.08	0.00	0.00

자료 : 교통사고분석시스템(도로교통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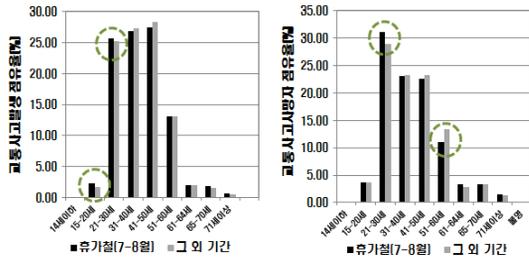


그림 6. 음주사고 및 사망자 점유율

(2) 음주정도별

휴가철에는 알콜농도 0.15%~0.19%이하의 음주운전사고가 전체교통사고의 3.92%로 가장 많았으며 0.15%~0.29%의 만취상태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6.0%, 음주사고의 48.9%를 차지하여 평소대비 1.2배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또한 0.05%이하의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휴가철 35.0%, 평소 38.1%로 매우 높았다. 0.05% 미만의 음주상태는 음주단속에서 제외되지만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은 만큼 적은 양의 음주상태에서도 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면허취득기간별

휴가철 음주사고를 운전자의 면허취득기간별로

표 14. 최근 5년간 음주수준별 교통사고 및 사망자 점유율

구분	휴가철(7-8월)			그 외 기간			
	교통 사고 점유율 (%)	사망자 점유율 (%)	치사율 (%)	교통 사고 점유율 (%)	사망자 점유율 (%)	치사율 (%)	
음주 상태	0.05%미만	0.21	2.98	35.0	0.19	2.84	38.1
음주 운전	0.05%~0.09%	2.10	2.79	3.1	2.53	3.07	3.1
	0.10%~0.14%	3.84	3.95	3.3	4.80	4.11	3.2
	0.15%~0.19%	3.92	4.62	2.6	3.68	4.22	2.2
	0.20%~0.24%	1.67	2.54	2.9	1.22	2.57	3.0
	0.25%~0.29%	0.41	1.22	3.8	0.25	0.92	5.5
	0.30%~0.34%	0.07	0.15	7.5	0.05	0.25	9.7
	0.35%이상	0.02	0.06	5.2	0.01	0.06	13.0
	측정불능	0.24	0.08	8.6	0.24	0.05	12.7
측정불능	0.07	0.29	0.9	0.07	0.20	0.5	
정상운전	86.14	80.74	10.3	85.62	81.02	7.4	
기타불명	1.31	0.57	2.3	1.33	0.68	2.5	

자료 : 교통사고분석시스템(도로교통공단)

보면 8.84%가 면허취득기간이 2년 미만의 초보 운전자에게 의한 사고였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8.67%로 나타나 휴가철 초보운전자에 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표 15. 최근 5년간 면허경과기간별 음주운전사고

구분	전체 음주사고		휴가철(7-8월)				그 외 기간			
	교통사고 (건)	사망자 (명)	교통사고발생		사망자		교통사고발생		사망자	
			(건)	점유율 (%)	명	점유율 (%)	(건)	점유율 (%)	명	점유율 (%)
합계	1,108,063	28,608	190,897	100.00	4,761	100.00	917,166	100.00	23,847	100.00
1년미만	51,770	1,139	9,633	5.05	219	4.60	42,137	4.59	920	3.86
1-2년미만	40,877	1,063	7,233	3.79	194	4.07	33,644	3.67	869	3.64
2-3년미만	37,584	920	6,656	3.49	167	3.51	30,928	3.37	753	3.16
3-4년미만	33,716	793	5,944	3.11	140	2.94	27,772	3.03	653	2.74
4-5년미만	45,639	1,218	7,957	4.17	208	4.37	37,682	4.11	1,010	4.24
5-10년미만	209,819	5,369	35,949	18.83	904	18.99	173,870	18.96	4,465	18.72
10-15년미만	171,345	4,121	28,943	15.16	662	13.90	142,402	15.53	3,459	14.50
15년이상	422,372	10,903	71,440	37.42	1,710	35.92	350,932	38.26	9,193	38.55
무면허	49,141	2,345	9,025	4.73	432	9.07	40,116	4.37	1,913	8.02
기타/불명	45,800	737	8,117	4.25	125	2.63	37,683	4.11	612	2.57

자료 : 교통사고분석시스템(도로교통공단)

III. 휴가철 교통사고 특성

최근 휴가철 교통사고는 평소에 비해 다소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사망자는 평소에 비해 감소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휴가철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을 알 수 있었다.

첫째, 휴가철에도 평소와 같이 금·토요일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일·화요일의 경우 평소보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요일 교통사고 사망자 점유율은 평소에 비해 1.42%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20-22시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나 사망자 점유율은 00시-06시에 25.29%로 평소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휴가철에는 차대사람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1.21%로 평소보다 적은 반면, 차량단독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5.2%로 평소보다 많았다.

또한 휴가철에도 평소와 같이 시군도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사망자 점유율도 시군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국도에서의 교통사고는 평소보다 다소 적게 발생한 반면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휴가철에는 비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는 평소보다 많이 발생하였고, 사업용자동차는 평소에 비해 2.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에는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의 사고 발생비율이 낮은 반면 이용자가 많은 렌터카 교통사고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1년의 경우 휴가철 렌터카 교통사고는 444.5건으로 평소에 비해 1.24배 많이 발생하였다.

택시의 경우 휴가철 사고는 평소보다 적었으나 사망자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휴가철 도심 내 차량통행 감소로 택시의 신호 위반 및 과속운전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휴가철 20대 운전자들의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31.2%로 평소보다 많았으며, 운전자 면허취득기간이 2년 미만인 초보운전자에 의한 사고 또한 평소보다 많았다. 특히 알콜농도 0.15%~0.19%이하의 음주운전사고가 전체교통사고의 3.92%, 0.15%~0.29%의 만취상태 교통사고는 음주사고의 48.9%를 차지하였다. 0.05%이하 음주상태의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휴가철 35.0%, 평소 38.1%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휴가철에는 평소와 달리 운행시간이나 도로환경, 운전자 특성 등이 평소와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휴가철 교통사고 특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휴가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휴가철에는 교통량이 많아지는 고속도로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이 특별히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통량 1만대당 교통사고가 많은 서울-양양선, 88올림픽 무안-광주선, 중부내륙선의 지선과 연평균 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영동선과 중부내륙선에 대한 안전대책이 절실하다.

휴가철 도심에서의 택시의 신호위반이나 과속과 같은 난폭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치사율이 높은 야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며, 운전자들은 낮선 휴가지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야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휴가철 렌터카 교통사고는 평소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렌터카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또한 이 기간에는 2년 미만의 초보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와 20대 음주운전자로 인한 사고의 치사율이 높은 만큼 휴가철 들뜨기 쉬운 이들 초보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서 분석된 결과에서 보듯이 0.05%미만의 적은 음주는 단속대상에서는 제외 되지만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매우 높은 만큼 적은 양의 음주운전도 절대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휴가철에는 들뜬 마음에 난폭운전이나 음주운전 등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음주운전 금지 및 전좌석 안전띠 착용, 양보 운전과 같은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선진화된 교육 및 훈련 등의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도로교통공단, 각 년도 교통사고 현황, 교통사고분 석시스템, <http://taas.koroad.or.kr>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교통통계, <http://www.ex.co.kr>